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Metal Type Buddhist Book Edi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송 일 기 (Il-Gie Song)*

정 왕 근 (Wang-Kun Jung)**

목 차

- | | |
|-------------------------|---------------------|
| 1. 서 언 | 3.4 乙酉字本 |
| 2.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서의 傳存 현황 | 3.5 尙史字本 |
| 3. 금속활자본 불서의 간행 사실 | 4. 금속활자본 불서의 문헌적 특성 |
| 3.1 甲寅字本 | 4.1 조선전기 불서 |
| 3.2 乙亥字本 | 4.2 조선후기 불서 |
| 3.3 丁丑字本 | 5. 결 언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간인한 불교서적에 대해서 서지학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간행한 불교서적은 모두 36종이 현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에 사용한 활자별로 분석해 보면, 갑인자본이 9종, 을해자본이 13종, 정축자본이 2종, 을유자본이 3종, 그리고 전사자본이 9종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을해자로 간인된 불서가 13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어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를 간행시기로 분석한 결과, 조선전기에는 모두 27종이, 조선후기에는 모두 9종의 불교서적이 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세종대에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19종으로 조사되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의 비정상적 즉위와 더불어 호불적 성향과 깊은 영향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books printed using metal typ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from a bibliographical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36 kind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using metal typ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hat currently exist. In terms of the types used for publication, there were 9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Gapinja*, 13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Eulhaeja*, 2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Jeongchukja*, 3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Eulyuja* and 9 kinds of printed editions by *Jeonsaja*. Among them, The Buddhist books printed using *Eulhaeja* were 36 % of total with the highest quantity of 13 kinds. In terms of periods of publication, it was found that 27 kinds and 9 kinds of Buddhists books were published respectively in the first and latter parts of *Joseon Dynasty* periods. Among them, there were 19 kinds of metal type book editions published during the King *Sejo* period that occupied 70% of total. It appears that such phenomenon was a result of King *Sejo's* abnormal enthronement and Buddhism-friendly tendency.

키워드: 불교서적, 금속활자, 세종, 세조, 갑인자, 을해자, 정축자, 을유자, 전사자

Buddhist Books, Metal Type, Sejong, Sejo, Gapinja, Eulhaeja, Jongchukja, Eulyouja, Jensaja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wissenschaft@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5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2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23-246,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223]

1. 서 언

전통시대 서적을 간행하는 수단은 목판과 활자로 인쇄하는 두 가지 방법 뿐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을 만든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목판인쇄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8세기부터 서적을 간행하는 수단으로 보편화되었으나, 금속활자 인쇄 방식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보편적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방법이었다. 이러한 금속활자 인쇄방법은 이미 고려 13세기 전반에 중앙 관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고려 말기에는 지방의 사찰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들어 와서 금속활자를 사용해서 서적을 인쇄하는 방법은 초기부터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획기적으로 개량 발전시켰다. 이는 당시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사대부들의 의도적 발상이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하는 서적은 우선적으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배포하였으며, 지방에서는 다시 이 활자본을 목판에 복각 또는 번각하여 수요에 충당하는 서적보급 정책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중앙관서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서적은 국가 이념에 적합하고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의 서적이 중심으로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소헌왕후가 사망한 이후로 금속활자본의 간행 경향에도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글 문헌을 試用하는 한편 죽은 왕후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의 일대를 기리는 불교서적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중에는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 활자를 병용하여 간인된 서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 조선시대 간행된 금속활자본의 연구는 활자 복원을 위해 鑄造 또는 組版 방법 등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언해본은 단행의 서적만을 대상으로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가능하면 간행 사실을 조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헌사적 측면에서 불교문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목하고자 하였다.

2.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서의 傳存 현황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인쇄방식을 사용해 오다 태종 때 鑄字所를 설치하고 癸未字를 주조하면서부터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세종 때 초주갑인자에 이르러 주조와 조판 과정 등 여러 분야가 혁신되어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고도로 발전된 금속활자는 세종 말년까지는 국정 운용에 필요한 유가 및 제도에 관련된 서적만을 刊印하였으나, 세종이 말년에 한글을 창제하고 정비인 소헌왕후가 죽자 심경에 호불적 변화를 가져 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 불교문헌을 한글 활자와 갑인자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조 또한 부왕 세종보다도 더욱 호불적 성향을 보이면서 『월인석보』를 비

못하여 수많은 불교서적(이하 '불서'로 약칭)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갑인자는 물론 을해자와 을유자 등으로 인출한 불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후 성종 때 『영험약초언해』의 간행을 끝으로 조선전기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조선후기 고종 때 전사자로 다양한 불서가 간행된 바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간인된 불서의 현전본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서의 현존 현황

區分	活字名	종수	비율
使用活字	甲寅字	9종	25%
	乙亥字	13종	36%
	丁丑字	2종	6%
	乙酉字	3종	8%
	奎史字	9종	25%
합계		36종	100%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간행된 불서는 모두 36종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서를 간행하는데 사용된 활자는 갑인자 등 5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4종은 조선전기에 주조되었고 전사자만 유일하게 조선후기 순조 때 주조된 활자이다. 전체 36종 가운데 갑인자는 9종, 을해자는 13종, 정축자는 2종, 을유자는 3종, 그리고 전사자는 9종을 간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종수를 찍어 낸 금속활자는 세조 대 조성된 을해자로 전체의 36%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불서를 간인한 금속활자를 대상으로 해당 불서의 간행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금속활자본 불서의 간행 사실

3.1 甲寅字本

갑인자는 1420년에 만든 庚子字의 자체가 가늘고 촘촘하여 보기가 어려워지자 세종이 세종 16년(1434) 갑인년에 李蕝·李純之 등으로 하여금 두 달 동안에 주조한 20여만 개의 금속활자를 말한다. 이 활자는 명나라에서 수입한 관판본 『孝順事實』과 『爲善陰騭』 등을 자본으로 삼아 만든 것이다. 여기에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진양대군 瑠에게 자본을 쓰도록 하여 주조하였다.¹⁾

이 갑인자는 1580년(선조 13)에 再鑄될 때까지 儒家書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간행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 활자를 주조해 한자와 병용하여 서적을 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종 말년에는 일찍 죽은 정비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불교와 관련된 전적이 다수 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전래하는 갑인자본은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현전하는 초주갑인자본 불교 전적은 모두 9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현전본은 대략 세종 말년에서 세조연간 사이에 간인된 것으로 국한병용본 2종과 한문본 7종으로

1) 『世宗實錄』 권65, 세종 16년 7월 2일(정축). 「乃命蕝監其事, 集賢殿直提學金墩·直殿金鑽·護軍蔣英實·僉知司譯院事李世衡·舍人鄭陟·注簿李純之等掌之. 出經筵所藏 《孝順事實》·《爲善陰騭》·《論語》等書爲字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瑠書之, 鑄至二十有餘萬字,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 功課之易就, 比舊爲倍」.

〈표 2〉 갑인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특징

서명	간행연대	현존본	소장처	비고	분류
釋譜詳節	世宗29(1447)	6, 9, 13, 19 23, 24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도서관	한글中小活字, 甲寅中小字, 正統12	史傳類-傳記部
月印千江之曲	世宗29(1447)	卷上	미래엔(舊대한교과서) 박물관	한글大活字, 甲寅小字, 默潭三昧	史傳類-傳記部
舍利靈應記	世宗31(1449)	單	동국대학교도서관	甲寅中小字, 墨蓋子, 上之31年, 한글이름	史傳類-靈驗部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世宗32(1450)	單	김민영	甲寅中小字, 景泰庚午琅玕居士書	宗義類-禪 宗
妙法蓮華經	世宗32(1450)	3 5~7	계명대학교서관 대일사	甲寅中字, 景泰元年	經典類-法華部
妙法蓮華經 (重刊本)	世祖 3(1457)	2	서울대가람문고		
永嘉眞覺大師證道歌 (註解)	世祖 3(1457)	單	고려대학교서관	甲寅中小字, 墨蓋子, 天順元年/法施之寶	宗義類-禪 宗
大乘起信論疏	世祖 3(1457)	單	양산 대성암	甲寅中小字, 御製跋 天順元年	註疏類-論書部
天地冥陽水陸雜文	世祖年間	單	고려대만승문고	甲申(1464)我世祖 鑄字印出數十件頒施	禮懺類-齋儀式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전적은 국한문을 병용한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 2종이다.

먼저 『석보상절』은 『釋譜詳節序』와 『御製月印釋譜序』에 1466년 죽은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편찬한 책이다. 그 내용은 『釋迦譜』,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地藏菩薩本願經』, 『大方便佛報恩經』, 『妙法蓮華經』 등에서 부분적으로 채록하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한문 부분은 초주갑인자의 中字와 小字가 사용되었는데, 중자는 본문에, 소자는 夾註에 사용되었다. 또한 한글 활자는 대자, 중자, 소자가 사용되었는데, 대자

는 본문에, 중자는 협주에, 그리고 소자는 본문의 한자 독음에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석보상절』의 마지막 권은 24권으로 대략 30권에 이르는 거질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권6·9·13·19의 4책(보물 제523-1호)이 소장되어 있고,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권23·24의 2책(보물 제523-2호)이 소장되어 있다. 두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의 형태사항이 전체 크기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같은 판본으로,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²⁾

다음으로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악장체 장편 敍事詩歌이다. 세종 28년 3월 왕비인 소헌왕후가

2) 국립본 4책은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교수이던 江田俊雄이 1935년 가을에 황해도 답사 여행 때 長壽山 아래에 있는 사찰의 고탑에서 출토되어 보관 중인 것을 입수하였다가 1938년에 조선총독부도서관에 180圓

승하하자 세종은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釋迦의 일대기를 엮은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석보상절』이 완성되자 세종이 이를 보고 석가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 580여 장을 지어 수록하였는데, 이 노래가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다. 이처럼 『월인천강지곡』은 수양대군이 지은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이 바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³⁾ 그런데 『석보상절』이 세종 29년 7월에 편찬되어 바로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 책 또한 『석보상절』이 편찬된 직후인 세종 29년인 1447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책은 본래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상권 1책뿐이며, 현재 미래엔(Mirae N) 박물관에 소유되어 있고 보물 제398호로 지정되어 있다. 권수제면에는 「默潭三昧」와 「陳家永藏」이라는 장서인이 보이고 있어 목담 성우선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陳鎰洪씨를 거쳐 지금의 소장처로 이동한 이 책의 전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⁴⁾ 본문은 한글 활자 대자로 한자표기는 갑인소자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한글 활자는 『용비어천

가』와 『동국정운』과 같이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긴 고딕형 전서체의 글자로 정교하게 찍혀져 있어 전체적으로 굵은 직선의 굳건한 느낌이 주는 권위와 근엄함의 표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외 7종은 모두 한문본으로 초주갑인자 중소자를 사용하여 인출된 자료로 대부분 현존 유일본들이다. 그 중 세종의 명으로 金守溫(1410~1481)이 文昭殿 불당 창건 전말과 사리 출현의 異蹟을 기록한 『舍利靈應記』에는 〈精勤入場人名〉 아래에 경찬회에 참여한 많은 인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는 韓실구디·朴검동·朴타내·金막동 등 한글로 이름을 표기한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함허당 득통이 편찬한 『顯正論』과 『妙法蓮華經』이 세종이 승하하던 해에 간행되었다. 현정론은 현존 유일본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며, 범화경은 아직까지 권1과 권2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결본 상황이다.

당나라의 眞覺大師(647~713)가 편찬한 『永嘉眞覺大師證道歌(註解)』는 永嘉가 선종의 제6조 慧能(638~713)을 배알하고 하룻밤에 크게 깨달은 ‘一宿覺’의 진리를 읊은 노래에 그

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대본 2책은 보은 법주사 조실을 지낸 壯昊 대종사가 소지하고 있던 것을 청주 용화사 주지 永周 종사가 입수하여 1966년 안성 칠장사 주지 義淨 선사에게 물려 준 것을 동국대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이다(金英培, 2000. 『國語史資料研究』, 서울: 月印, p.33). 그리고 삼성미술관 리움에 권1이 또한 보물로 지정되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원간본인 활자본이 아니라 후대에 사찰에서 활자본을 저본으로 다시 목판에 새겨 인쇄한 복각본이다.

3) 근래 정광 교수에 의해 이들 두 종의 불교문헌에 앞서 『월인석보』 舊卷本이 편찬되어 이들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정광, 2013. 월인석보의 舊卷과 훈민정음의 언해본: 正統12년 佛日寺板 월인석보 玉冊을 중심으로. 『國語學』, 68: 3-49).

4) 그런데 최근 안승준에 의해 『월인천강지곡』이 진라도 부안 능가산 實相寺에 봉안되었던 불상의 불복에서 수습되었다는 전말이 밝혀졌다. 그는 함께 불복에서 수습되었던 〈중창발원문〉과 목담선사의 서신 등 관련 자료와 면담 조사를 통해 1894년 동학도들에 의해 파손된 본존불상을 1914년에 소각하면서 불복에서 성물과 불교전적이 다수 수습되었는데, 이때 『월인천강지곡』이 발견되어 실상사 주지 金性連이 보관하던 것을 1918년 목담선사가 인수해 왔던 경위와 전래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안승준, 2014. 월인천강지곡의 부안 실상사 소장 경위와 그 전래 과정. 『藏書閣』, 32: 48-74). 현재 이 책은 미래엔박물관 소장품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의 누이 淨居가 주해한 것이다. 현재 이 책은 유일하게 고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같은 해에 다시 을해자로 인출한 판본은 서울역사박물관 등 비교적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이 책의 권말에는 御製跋과 천순 원년(1457) 9월에 姜孟卿 등 총 8건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수제면에는 「法施之寶」라는 세조의 內賜印이 안寶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근래 이와 동일한 내사인이 날인되어 있는 정축자본 『금강경오가해』가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장에서 수습된 사실이 보이고 있고⁵⁾ 또한 같은 해에 을해자로 인출한 『翻譯名義集』에도 동일한 내사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가 불경을 반사하면서 찍은 내사인으로 보인다.

중국 당나라 법장이 馬鳴이 찬술하고 여기에 宗密이 주해한 『大乘起信論疏』는 공인박물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卷上之二부터 보이고 있어 卷上之一이 결본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권말 어제 발문부분이 반이나 찢겨져 나가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세조가 죽은 아들을 위해 간행하였다는 것과 ‘天順元年’이라는 간기는 남아 있어 이 책이 1457년 간행되었던 사실은 알 수 있다.

3.2 乙亥字本

을해자는 端宗이 폐위되고 세조가 왕위에 등극한 세조 원년(1455)에 만들어진 동활자이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서 안평대군의 글씨를 바탕으로 주성한 庚午字를 녹여 姜希顔(1417~1464)의 글씨를 자본으로 하여 새로 주조한 것이다.⁶⁾ 을해자는 대자, 중자, 소자의 3종으로 만들어졌으나 자수는 알 수 없다. 대자와 중자는 강희안 글씨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나, 小字는 폭이 좁고 주로 중간 자 아래서 쌍행으로 細註를 달 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 다른 활자와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⁷⁾ 또한 이 을해자에는 한글 활자가 아울러 사용되었다. 이를 ‘을해자 병용 한글자’라 일컬으며 글자체는 인서체에서 필서체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조 초기에 주조된 을해자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초주갑인자와 함께 주로 오래도록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종·명종 연간에 간행된 인본에는 활자가 마멸되거나 補字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을해자는 세조 원년(1455) 주조된 이후 補鑄나 加鑄를 통해 선조 조까지 약 150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그 인본도 갑인자본 다음으로 많이 남아 있다. 주로 유교 및 사서의

5) 송일기. 2014.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書誌學研究』, 58: 136.

6) 을해자의 주조에 대해서는 『成宗實錄』(성종 5년 11월 22일)의 기사에 의하면, 성종이 우부승지 金永堅에게 요즈음 무슨 鑄字를 써서 책을 인쇄하는가라는 질문에 갑인년(1434)과 을해년(1455)에 주성한 활자를 사용한다면, 본래 서적 인출에는 庚午字보다 좋은 것이 없었는데 용(瑢, 안평대군)이 字本을 쓴 것이라 이미 폐기되어 이에 姜希顔에게 명하여 자본을 쓰도록 하여 활자를 주성하고 이를 을해자라고 하였다(上謂右副承旨金永堅曰: 今用何鑄字印書, 對曰: 甲寅·乙亥兩年所鑄字也 然印書莫善於庚午字而以瑢之所寫, 已毀之, 命姜希顔寫之而鑄成, 乙亥字是也)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을해자의 주조 사실을 알 수 있다.

7) 천혜봉. 2012. 『한국금속활자인쇄사』, 서울: 범우사. p.120.

간행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대중소자를 혼용하고 있다. 다음은 을해자로 간인한 불교전적을
서 불교서적을 간행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3〉 을해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특징

서명	간행연대	현전본	소장처	분류
妙法蓮華經	[世祖1(1455)]	2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經典類-法華部
		2, 3	연세대도서관	
		5	고려대만송문고	
		6, 7	월정사성보박물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世祖3(1457)	1~10	관문사	經典類-密敎部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世祖3(1457)	單	서울역사박물관(홍두선)	註疏類-般若部
翻譯名義集	世祖3(1457)	1-3	서울역사박물관	史傳類-事典部
永嘉眞覺大師證道歌(註解)	世祖3(1457)	單	서울역사박물관, 양덕사, 관문사	宗義類-禪宗
天台四敎儀集解	[世祖6(1460)]	上, 中, 下	고려대도서관	宗義類-天台宗
		下	화봉문고	
		上, 下	국립중앙도서관	
		中, 下	계명대도서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世祖7(1461)	1	성암문고	經典類-密敎部
		1, 2/2, 6	김병구, 호림박물관	
		1, 3	김민영, 김창현	
		2, 5	서울대도서관	
		3	동국대도서관	
		4, 7, 8	서울역사박물관	
		5	규장각, 보성선원	
		6	구인사, 천리대학도서관	
		7, 8	동국대도서관	
7, 8, 9, 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世祖7(1461)]	序-1	호림박물관	經典類-經集部
		2~5	고려대도서관	
		4, 6/4	동학사, 계명대도서관	
釋迦如來成道記(夾註)	世祖年間	單	김민영, 구인사, 선광사(부산)	史傳類-傳記部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	世祖年間	3	국립중앙박물관	註疏類-經集部
		6~8	계명대도서관	
注大乘入楞伽經	世祖年間	4	성암문고	註疏類-經集部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成宗13(1482)	上, 下	규장각	宗義類-禪宗
		上, 下	관문사	
		下	고려대도서관	
		下	성암문고	
靈驗略抄(諺解)	成宗16(1485)	單	상원사	史傳類-靈驗部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을해자로 간행한 불교전적은 모두 13종에 이르고 있다.⁸⁾ 이 중 한글 활자가 사용된 언해본은 『능엄경언해』, 『증도가계송언해』, 『영협약초언해』 3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10종은 한문본이다. 한문본 10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注大乘入楞伽經』(卷4)이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서 계명대와 동국대에 소장되어 있는 『능가경주해』와 더불어 세조 때 불서 간행 경향이 주목된다. 또한 최근 을해대·중·소자로 인쇄한 『翻譯名義集』(卷1-3)과 을해대·중자로 인쇄된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가 새로 발견되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되고 있다.⁹⁾

그 중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불경은 세조 7년(1461)에 을해대·중·소자와 한글소자를 함께 사용해서 간행한 능엄경 언해본이다. 이 책의 권10의 권말에 있는 어제발, 信眉, 김수온 등의 발문에 의해 그 간행 경위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들 발문을 보면 일찍이 세종이 능엄경을 보고 세종 31년(1449)에 수양대군에게 능엄경의 번역을 명하였으나 한 동안 완성하지 못하였다가, 세조 7년(1461) 5월 檜巖寺의 불사에

서 釋迦如來分身舍利의 출현이 있었을 때 효령대군이 국역의 완성을 주청하여 세조가 신미와 學悅, 學祖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461년 6월 11일에 시작하여 그 해 8월 22일 국문으로 번역을 완료하였고, 이내 하성위 鄭顯祖가 교서관에서 인쇄에 들어가 그 해 10월말 경에 400부를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권10 말미의 세조가 지은 발문에 보이고 있다.¹⁰⁾

그러나 현재 활자본 『능엄경』 언해본 전 10권은 어느 곳에도 완질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만 권1부터 권10까지 완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전해지는 활자본 능엄경 언해본은 대부분 朱墨으로 교정한 흔적과 校正印이 보이고 있으며, 이후 이 교정본을 수정하여 그 이듬해 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을해자로 인출한 언해본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선종영가집』과 동시에 과연 400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금속활자로 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¹¹⁾

8) 김두중이 제시한 을해자본 서목에는 『금강경언해』(1464년), 『지장보살본원경』(1479년), 『불정심다라니경언해』(1486년) 등 3종을 더 들고 있다(金斗種, 1980,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pp.154-158). 그런데 금강경은 같은 해인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이 간행된 바 있어 이와 착오가 있는 듯 하며, 지장경 또한 1474년 광평대군부인 신씨가 주관하여 간행한 견성사판의 을해자 발문이 있는 후인본과 착오가 있는 듯하다. 다만 『佛頂心陀羅尼經諺解』는 이희승의 소장본으로 이를 영인한 영인본이 있으나, 그 현전본의 전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1561년 평안도 대청산 解脫庵에서 개관된 판본에 을해자본의 복각본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간행 가능성이 확인되며, 판본의 특징은 을해자본 『영협약초언해』(1485년)와 유사하다.

9) 옥영정, 201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흥두선 기증 고서의 현황과 그 가치, 『書誌學報』, 38: 177-178.

10) 당시 능엄경 언해본을 인쇄할 때 사용된 한글소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잔존 한글 활자를 자세히 보면 인쇄면에는 방점이 보이고 있으나 활자 실물에는 방점이 없어 별개로 조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pp.206-209).

11) 이때 인쇄된 『능엄경』과 『선종영가집』이 각각 400부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400부의 '部'라는 단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만약 部가 冊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고 지금의 세트와 같은 '帙' 또는 '件'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완전히 다르다. 을해자본 능엄경언해본은 10권이 한 질이 되니 400부가 정확하다면 당시 4,000권을 인출한 셈이다. 또한 영가집은 상하 2권으로

특이하게 을해소자와 한글소자로 인쇄된 『靈驗略抄諺解』는 현존 유일본으로 1984년 강원도 오대산의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유물 중 하나로 수습되었으며 동반 유물들과 함께 보물 제7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언해본은 본래 성종 16년(1485)에 『五大眞言』에 함께 합철되어 있는 한문본 『영험약초』를 언해하여 을해소자와 한글소자로 간행하여 합철한 것이다. 이 책은 『오대진언』에 수록된 大悲心陀羅尼·隨求即得陀羅尼·大佛頂陀羅尼·佛頂尊勝陀羅尼 등의 진언을 대상으로 영험한 사실들을 모은 것이다. 한문본 말미에 있는 학조가 지은 발문 연대에 의해 이 책이 성종 16년(1485)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을해자로 인쇄된 『영험약초』의 언해본만 별도의 단행본으로 유전되는 실물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를 끝으로 조선전기 에 을해자로 인쇄된 불교전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의 을해자본 불교전적은 세조 초년부터 성종 1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한문본 불전에는

대자는 경의 정문, 중자는 경의 새김, 그리고 소자는 쌍행의 주를 다는 데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체제가 여기서부터 확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글자의 서체는 편편하고 대체로 폭이 넓다. 을해자의 대자, 중자 및 소자로 인쇄된 서적은 불교 전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3 丁丑字本

세조 3년(1457) 9월에 젊은 나이로 일찍 죽은懿敬世子(훗날 德宗으로 추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여러 활자로 많은 불서를 찍게 한 것 중에 하나가 『金剛經五家解』인데, 그 불경의正文을 세조가 몸소 써서 글자본으로 삼고 주조한 동활자를 ‘丁丑字’라 한다. 정축자는 을해대자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데, 을해자가 가로가 퍼지고 둥근 필의를 질게 나타내는 반면 정축자는 세로가 길쭉하고 서법이 그보다 해정한 필서체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주조가 정교하여 필력이 다른 활자보다 비교적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정축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특징

서명	간행연대	현전본	소장처	분류
金剛經五家解	世祖3(1457)	上	성암문고	經典類-般若部
		下	수국사	經典類-般若部
金剛經三家解(諺解)	成宗13(1482)	序, 1, 5	동국대도서관	經典類-般若部
		序, 1/4	보림사, 호림박물관	
		1, 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계명대도서관	
		2, 3, 4, 5	규장각	
		3, 4	성암고서박물관	

되어 있으니 800권을 인쇄한 것으로 도합 4,800권에 달하는 분량을 과연 불과 2개월 만에 활자로 인쇄가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든다. 참고로 간경도감에서 불경을 간행하여 임금에게 진상하면서 부친 進箋文에는 능엄경의 경우 ‘一部 一十卷’이라 하고 원각경은 ‘一部 十一卷’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帙이나 件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세조가 득통의 說義와 決議가 합쳐진 『금강경오가해』를 금속활자로 찍게 하였는데, 이때 정문을 찍는데 사용한 대자가 바로 정축자이며, 그 외 다른 인본으로는 『金剛經三家解』가 남아 있을 뿐이다.

정축자로 간행된 불교전적은 금강경 <오가해>와 <삼가해> 2종에 불과하다. 이 오가해는 세조가 친히 쓴 대자로 정문의 자본으로 삼아 주조하였으며, 주해문은 이미 세종 때 주조한 초주갑인자의 중자와 소자를 이용하여 100부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수량은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수습한 권하 1책을 포함하여 겨우 상·하 한 질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래 새로 출현한 수국사본은 전후 표지가 완전한 최선본으로 권수에 「法施之寶」라는 내사인이 찍혀 있고 권말에는 김수온과 세조의 어제발 등 8건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동안 정축자본 『금강경오가해』의 간행 배경에 대해서는 동시에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초주갑인자본 『증도가주해』의 권말에 수록된 발문에 의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근래 수국사에서 새로 발견된 하권의 권말에도 동일한 발문이 보이고 있어 동시에 간행된 다른 인경본에도 같은 발문이 수록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세조는 의경세자가 세조 3년(1457) 9월 2일에 나이 이십으로 요절하자 亡子를 위해 혜각존자 신미와 주지 弘濬 등으로 하여금 득통 설의를 교정케 하여 오가해에 편입하고 『증도가주해』를 비롯한 다른 많은 불서와 더불어 轉經케 했다는 사실이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금강경삼가해』는 오가해중에서 治父의 頌, 宗鏡의 提綱, 득통의 설의 등 3家の

주해를 뽑아 구결을 달고 한글로 번역하여 5권 5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발문에는 삼가해와 더불어 오가해에 대한 간행 경위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금강경의 번역 작업은 세종이 訓民正音を 창제한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자(문종)와 수양대군에게 번역을 명했으나 초고를 마치고 교정하기 전에 그것을 끝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어 문종이 즉위하였으나 단명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세조는 재위 중에 많은 불경을 간행하였는데, 그 중 부왕의 유명으로 특히 『금강경오가해』의 간행과 『금강경』을 언해한 일에 관심을 두었다. 비록 금강경의 정문은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가해의 번역은 완성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비로소 성종 13년(1482)에 이르러서야 세조비 貞熹王后의 명으로 승려 학조가 교정하여 삼가해가 언해 간행되었다. 정문은 정축대자로 찍었고 註解文의 한문과 한글은 을해소자와 한글소자로 병용하여 찍었다. 현존본은 규장각 등 전국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합치면 비로소 완질을 이룰 수 있다.

3.4 乙酉字本

을유자는 세조가 圓覺寺를 준공하고 이를 위해 경찬회를 베풀고 13층석탑에 봉안하기 위해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의 간행을 만들 목적으로 주조하였으며, 아울러 정문에 口訣을 달기 위해 한글 활자도 주조하였다. 이에

세조 11년(1465)에 정난중(1433~1489)의 글씨를 자본으로 삼아 대자, 중자, 소자의 동활자를 주조하였는데 그 해의 간지를 따 '乙酉字'라고 한다. 이처럼 을유자의 한자 활자는 대자, 중자, 소자의 3종이 주조되고 한글 활자는 구결을 달 의도로 소자만 만들어졌으나, 당시 주조한 자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활자의 字體는 편편하고 대체로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을유자의 주조에 대해서는 김종직(1431~1492)의 갑진자 『新鑄字跋』과 成倪(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언급되고 있는데,¹²⁾

여러 유신들이 한 걸 같이 글자체가 단정하지 않다고 혹평하면서 쓰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얼마 못가 갑진자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져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조 조에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씨체를 자본으로 삼아서 주성한 마지막 독자적인 서체의 금속활자라는 점에서 인쇄사적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을유자로 찍은 대표적 인본으로는 『원각경언해』(1465), 『碧巖錄』(1465), 『六經合部』 등 주로 불교서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전하는 판본의 전래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을유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특징

서명	간행연대	현전본	소장처	분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世祖11(1465)	序, 上 ^一 之 ^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經典類-經集部
		上 ^一 之 ^二 , 上 ^二 之 ^一 ~ ^三 , 下 ^一 之 ^一 ~ ^二 , 下 ^二 之 ^一 ~ ^二 , 下 ^三 之 ^一 ~ ^二	성암문고	
		上 ^一 之 ^二 , 上 ^二 之 ^一 ~ ^三 , 下 ^一 之 ^一 ~ ^二 , 下 ^二 之 ^一 ~ ^二 , 下 ^三 之 ^一 ~ ^二	국립중앙도서관	
		上 ^一 之 ^一 , 下 ^一 之 ^一 ~ ^二 , 下 ^二 之 ^一 ~ ^二	고려대 만송문고	
		上 ^一 之 ^二	규장각	
		上 ^二 之 ^一 ~ ^二	호림박물관	
		上 ^二 之 ^一 ~ ^三	고려대 신암문고	
		上 ^二 之 ^二 , 下 ^三 之 ^一 ~ ^二	김민영	
		上 ^一 之 ^二 , 下 ^一 之 ^一 ~ ^二 , 下 ^二 之 ^一 ~ ^二	아단문고	
		上 ^二 之 ^二 ~ ^三	월정사성보박물관	
		上 ^二 之 ^三 , 下 ^一 之 ^一 ~ ^二	화봉문고	
		下 ^一 之 ^一 ~ ^二	원각사(고양)	
		下 ^二 之 ^一 ~ ^二	영남대도서관	
下 ^三 之 ^一 ~ ^二	고려대 경화당			
六經合部	世祖末年	單	구인사, 고려대도서관, 계명대도서관	經典類-諸經部
佛果圓悟禪師碧巖錄	世祖11(1465)	전10권	삼성출판박물관	宗義類-禪宗
		6~8/9~10	국립도서관, 호림박물관	

12) 金宗直, 『甲辰字 新鑄字跋』, 『成於成化乙酉者, 胃之乙酉字, 鄭蘭宗之所書, … 乙酉字則其字, 不端正, 不可用』, 成倪, 『慵齋叢話』 卷7, 『其後乙酉年,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乙酉字』.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을유자로 간행된 불교전적은 모두 3종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전본의 전존 상황은 소장 사항과 같다. 그 중 원각경은 원각사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와 한글 활자를 주조하고 이를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그런데 을유자본 『원각경언해』는 그 편찬과 간행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이 책의 간행에 앞서 1461년에 한문본이 을해자로 간인되었으며, 그 후 얼마 되지 않은 1464년에는 함어당 득통의 주해가 들어 있는 한문본이, 그리고 1465년에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연이어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다시 한글로 구결을 단 을유자본이 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간의 일이 김수온이 지은 〈원각사비명〉에 보이고 있는데, 세조가 즉위한지 10년이 되는 갑신년(1464년)에 이르러 정치가 안정을 이루고 국가는 화평한 시절이 되었다. 이에 세조는 오직 大圓覺이 眞頓教의 眞詮이므로, 정무를 보는 여가에 친히 구결을 정하고 언문을 다 붙여서 장차 모든 백성이 대승의 도를 들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세조는 평소 ‘究竟’ 즉 무상의 경지에 이르러 見性成佛한다는 원각경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효령대군이 화암사에 사리비를 세운 후에 계속해서 나타난 분신사리의 이적을 보고 원각경에 친히 구결을 달아 번역케 하고, 폐사 상태인 흥복사를 다시 원각사로 증창토록 하였다.¹³⁾ 이러한 사실은 『세조실록』을 보면 10년(1464) 5월 이후 그 해만 무려 23회에 걸쳐 원각사 중

창과 관련된 기사가 보이고 있을 정도로 세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각경의 번역과 간행에 대해서는 원각사비문에 기록된 석탑의 사리 장치와 낙성 전독 행사와 관련해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각사는 세조 10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을묘일에 3백여 칸 규모로 낙성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원각사의 전각들이 낙성을 보자 경내에 13층석탑의 건립을 착공하고 분신사리와 새로 번역한 〈新譯圓覺經〉을 석탑에 안치하였으며, 그 후 이 석탑은 세조 13년(1467) 4월 초팔일에 가서야 완성되었다.¹⁴⁾ 석탑의 사리장치는 대체로 심초석이나 초층에 안치하기 때문에 실제 13층의 높이로 완성하는 시기와는 상당한 시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 11년(1465) 원각사가 완성이 되자 4월 초팔일에 세조는 신료들과 함께 친히 원각사에 행차하여 경찬회를 베풀고, 한편으로 세조 본인이 친히 구결을 달고 번역하게 한 〈신역원각경〉을 살펴보고 轉讀하였다.¹⁵⁾

그렇다면 이때 석탑에 安置하고 轉讀한 〈新譯圓覺經〉 판본은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인가, 아니면 을유자로 인출한 구결본인지 그 여부가 자못 주목된다. 간경도감 언해본은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 효령대군, 한계희 등이 국어로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간경도감 도제조인 黃守身 등이 올린 권수의 進箋文을 보면 세조에게 이 책(一部 十一卷)을 진상한 시기가 ‘成化元年

13) 金守溫, 『拭疣集補遺』〈大圓覺寺碑銘〉參見.

14) 『世祖實錄』 권42, 세조 13년(1467) 4월 8일(계묘), 『圓覺寺塔成, 設燃燈會以落之.』

15) 『世祖實錄』 권35, 세조 11년 4월 7일(계미), 『圓覺寺成 設慶讚會, 赴會僧一百二十八, 披覽御定口訣繙譯 <圓覺修多羅了義經>, 飯外護僧二萬 是日幸圓覺寺.』

(1465)三月十九日'로 기록되어 있어 간경도감 언해본은 늦어도 이 시기보다 앞서 조판과 인출, 그리고 장황 등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세조실록에도 이 보다 열흘 앞선 세조 11년(1465) 3월 9일에 효령대군이 원각경을 讎校하여 공역을 마친 것을 위로하는 잔치가 열렸고, 아울러 원각경을 번역한 공으로 韓繼禧와 姜希孟 등 여러 신료들에게 관직을 내려 주고 있다.¹⁶⁾ 이러한 사실로 보아 원각사 석탑에 안치 또는 낙성 시에 전독한 <신역원각경>은 바로 간경도감에서 국역 간행한 언해본으로 판단되고 있다.¹⁷⁾

그런데 천혜봉은 세조가 구결을 단 <新譯圓覺經>을 을유자로 찍어 轉讀한 다음 원각사 10층석탑에 분신사리와 함께 봉안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전독하고 봉안한 것'을 을유자로 인출한 구결본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⁸⁾ 또한 을유자는 원각사를 준공하고 바로 원각경(구결본)을 찍기 위해 주조한 것이라 하였다.¹⁹⁾ 이는 전후 사실이 완전히 뒤 바뀐 내용인데, 을유자로 찍었다는 원각경은 낙성 이전에 이미 간행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이를 찍은 을유자는 낙성 이후에 주조한 것이라 하니 만들어지지도 않은 활자로 불경을 인쇄한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성현의 『용제총화』에 보이는 "其後乙酉年, 欲印圓覺經"이라는 내용을 확대 해석한 착오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을유자는 원각사

낙성 이후 주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을유자본 원각경은 정문에 세조가 단 구결만 있고 宗密의 주석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있어 대중소의 한자 활자와 한글중소자 등 여러 종류의 활자가 만들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을유자로 인출된 『원각경』의 편성체제는 전체적으로 서문과 본문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권은 1과 2로 나뉘지고 하권은 1,2,3으로 편성하고, 다시 상1을 1과 2로, 상2를 1,2,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하권은 1,2,3에 각각 1과 2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체는 서문을 포함해 총 11권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 을유자본 원각경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서문을 포함한 1책을 비롯하여 성암고서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이 나머지 분권 4책을 갖추고 있어 이를 합치면 겨우 완질본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장서각본은 유일하게 서문이 포함되어 가치가 높다. 을유자가 주성되었던 세조 11년에 『벽암록』과 『육경합부』가 함께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5 全史字本

조선전기 성종 16년(1485)에 을해자로 간인된 『영험약초언해』를 끝으로 더 이상 불교전적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조선후기에 들어 와서도 고종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금속활자로 찍은 불전이 등장하는

16) 『世祖實錄』 권35, 세조 11년 3월 9일(병진). 『孝寧大君補, 嘗讎校 <圓覺經>至是事訖, 上御思政殿, 設宴慰之. (중략) 以韓繼禧爲吏(曹)判書, 梁誠之知中樞院事, 姜希孟仁順府尹, 韓致仁僉知中樞院事, 吳凝司憲執義, 繼禧希孟以譯圓覺經功也.』

17) 옥영정. 2008. 장서각 소장 보물 능엄경과 원각경의 인쇄문화적 가치. 『藏書閣』, 20: 21-25.

18) 천혜봉. 2012. 『한국금속활자인쇄사』. 서울: 범우사. p.143.

19) 金斗種. 1980.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p.177. ; 천혜봉. 2006.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p.348.

데 바로 全史字로 인쇄한 것이다. 이러한 전사자는 순조의 어머니인 綏嬪 朴氏의 오빠 朴宗慶(1765~1817)이 순조 16년(1816)에 청나라 무영전취진관 『二十一史』의 글자를 자본으로 주성한 인서체 동활자이다.²⁰⁾ 주조한 활자의 수량이 20만 자에 이르며 일가와 친지의 저서와 민간의 서적을 인출하였으며, 특히 대원군이 집정한 고종 후기에는 정서류 편찬서를 비롯한 불교서와 도교서가 인출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²¹⁾

왕실의 외척이 권세를 누리고 있던 무렵, 그 일가와 친지들의 저서와 문집을 인출해 주며 세도를 부리려고 한데서 주성된 것이기는 하나, 뒤에 이르러서는 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서적이거나 관청의 공용문적들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²²⁾ 특히, 활자의 모양이 신연활자와 같이 균정하고 크기가 적당하며 주조가 정교하여 민간에서도 서적을 간행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 또한 국역본에서는 인서체 한글 활자가

쓰였으며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전사자 병용 한글자'로 불리고 있다. 이들 활자는 대한제국 시기까지 다양한 서적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활자로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전적으로는 주로 양주 甘露社가 주관하여 찍은 『甘露法會』(1882)와 『金剛經正解』(1883) 등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사자로 인쇄된 불교서적은 모두 9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100여종의 전사본을 소개한 목록에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전사자를 사용하여 불교전적이 간인된 시기는 고종 19년(1882)에서 광무 6년(1902)까지 대략 20년 동안으로, 전사자가 순조 16년(1816)에 주조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은 시기부터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82년부터 1884년 사이에 간행된 판본은 甘露社에서 주관하여 인출된 것으로

<표 6> 전사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특징

서명	간행연대	현진본	소장처	비고	분류
甘露法會	高宗19(1882)	單	규장각	光緒壬午, 甘露社識	禮懺類-法儀式
金剛經正解	高宗20(1883)	單	동국대도서관	光緒癸未, 甘露社識	經典類-般若部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高宗20(1883)	單	국립중앙도서관	光緒癸未, 甘露社識	經典類-般若部
法海寶筏	高宗20(1883)	單	국립중앙도서관	光緒癸未, 甘露社識	宗義類-禪宗
述夢瑣言	高宗21(1884)	單	규장각	光緒甲申, 劉雲跋	史傳類-靈驗部
金剛般若波羅密經	高宗25(1888)	單	자비사	光緒戊子, 卞元圭刷印	經典類-般若部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光武5(1901)	單	동국대도서관		律典類-大乘部
七衆受戒儀軌	光武5(1901)	單	동국대도서관	朗應跋/供司: 勤和	律典類-小乘部
國內寺刹現行細則	光武6(1902)	單	김민영	光武6, 한글구결	史傳類-寺誌部

20) 마에마(前間恭作)는 이 활자를 남공철의 『穎翁續藁』에서 '全史字體'라고 표시한 데서 '全史字'라고 명명하였고, 윤병태는 활자를 만든 돈암 박종경의 호를 따라 '敦岩印書體字'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21) 천혜봉. 2012. 『한국금속활자인쇄사』. 서울: 범우사. pp.342-363.

22) 金斗種.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p.332.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판본은 간기가 밝혀져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감로사는 헌종의 모후인 神貞王后(1808~1890)를 비롯한 왕실과 신도들이 비용을 대어 불서를 간행했던 주체로 보인다. 그런데 甘露社의 한자 표기가 ‘寺’가 아닌 ‘社’로 쓰고 있어 수선사나 백련사의 경우처럼 일종의 결사단체의 성격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실은 1882년에 간행된 『甘露法會』의 서명에서 ‘甘露’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고, 내용에는 葆光거사가 쓴 結社文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社規까지도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편찬한 보광거사는 『법해보벌』의 서문에 ‘葆光居士劉雲薰沐謹識’라는 기록으로 보아 바로 金大鉉이 지은 『술몽쇄언(述夢瑣言)』의 발문을 쓴 劉雲임을 알 수 있다.²³⁾ 아울러 감로사에서는 전사자로 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1878년에 개관된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를 시작으로 5종의 불교전적이 목판본으로 간행된 사실도 파악되고 있다.²⁴⁾ 이 중 1908년에 간행된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의 간기를 보면 ‘西賓精舍開刊藏于甘露社’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실제 각판은 西賓精舍에서 이루어지고 목판은 감로사에 보존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상기의 9종 외에도 전사자로 인출된 불교전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광무 5년(1901)에 간인된 『칠중수계의례』의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跋文 및 發願記에 “光武五年歲

次辛丑道峰山望月精舍夏安居中四分律·梵網經·受戒儀軌印出”이라는 기록을 통해 『법망경』과 『칠중수계의례』 외에 『四分律』이 더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교전적 외에도 도교문헌으로 보이는 『注生延嗣妙應真經』도 간행되고 있어 당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유불도 삼교가 습합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상기 9종의 불전 중에 『금강경』은 경상도 자비사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유일본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역관 출신 문신으로 한성부 판윤을 역임했던 변원규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기 위해 인쇄비용을 충당하여 300본을 보시한 책인데, 그 중 1책이 발견된 것이다. 이 『금강경』은 1888년에 전사자로 인출한 불경으로 당시 변원규는 김윤식과 함께 청나라를 다녀온 이후 갑신정변에 참여하여 통상사무 아문의 협판으로 활약하던 중 신분이 미천하다고 배척되어 공무상 과실로 순천에 유배되었다가 해금되었던 해에 여가를 틈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금속활자본 불서의 문헌적 특성

4.1 조선전기 불서

고려는 불교계의 지원으로 건국한 이후 선교양종의 여러 종파가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 왔

23) 여러 목록과 백과사전에서 보광거사를 청나라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은 『述夢瑣言』을 지은 金大鉉의 제자인 劉雲으로 조선인이 분명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24) 이 무렵 감로사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1878),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882), 『蓮邦詩選』(1882),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1908), 『佛說天尊却癩瘡神呪經』(1908) 등 5종의 목판본 불서가 더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왕실 등 상당한 지원세력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으나, 보조 지눌 등장한 이후 선종이 크게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고려 중기 이후 송대 주자에 의해 새롭게 변화한 유학, 즉 성리학이 신진사대부를 통해 고려에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고려의 사회적 모순과 병폐를 치유한다는 명분에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사대부에 의해 건국되었기 때문에 국가 시책이 자연 성리학적 운영체제로 크게 변화되었다. 조선 건국과 더불어 이러한 국가시책의 변화에 따라 불교계의 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나마 조선 초기에는 간혹 호불적인 군주의 성향에 따라 때로는 왕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이후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선전기 불교서적의 간행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26종에 달하는 다양한 불교서적이 간행되었으며, 이들 불서의 문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류를 시도하였다.²⁵⁾

<표 7>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조선전기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27종이 傳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세조대에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18종으로 조사되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대에는 5종으로 19%, 그리고 성종대에는 3종에 불과하여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군주의 호불적 성향과 매우 깊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세조는 즉위 과정에서 조카인 단종을 폐위 사사하는 등 수 많은 정적을 살해하고 등극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참혹한 행위를 불교적 활동으로 치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선시대를 통틀어 불교에 가장 호의적으로 신봉했던 군왕이었다. 또한 부왕의 유명과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더욱 열성적으로 불교서적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조는 석가가 공자보다 더 나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하며,²⁶⁾ 불교가 유교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고, 스스로 '好佛君主'로 자처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세조가 대군시절부터 불교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백부인

25) 불교문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자가 동국대학교 도서관 <東洋關係項目展開表>의 『佛典』 부분을 수정 적용하여 작성한 아래의 <佛敎典籍 文獻分類表>에 의거 분류하였음을 밝혀 둔다.

類目	A 經典類	B 律典類	C 論書類	D 註疏類	E 宗義類	F 史傳類	G 禮儀類	H 詩文類
細部項目	1 般若部	1 小乘部	1 釋經部	1 般若部	1 天台宗	1 傳記部	1 法儀式	1 韓國撰述
	2 法華部	2 大乘部	2 毘曇部	2 法華部	2 法相宗	2 靈驗部	2 齋儀式	2 中國撰述
	3 華嚴部		3 論集部	3 華嚴部	3 華嚴宗	3 寺誌部		3 諸國撰述
	4 寶積部			4 寶積部	4 禪宗	4 目錄部		
	5 涅槃部			5 涅槃部	5 淨土宗	5 事典部		
	6 經集部			6 經集部				
	7 密敎部			7 密敎部				
	8 諸經部			8 律典部				
			9 論書部					

26) 『世宗實錄』卷122, 세종 30년 12월 5일(丁巳). 『佛堂成, 設慶讚會 ... 首陽大君語曰: “汝謂孔子之道, 與釋迦孰優” 任曰: “孔子之道, 吾嘗讀其書, 粗知其義, 至若釋氏, 吾不嘗見, 其書未敢知也. 大君曰: “釋氏之道過孔子, 不啻霄壤先儒曰: “雖欲挫燒春磨, 無所施 此未知其理而妄言者也.”

〈표 7〉 조선전기에 간행된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문헌적 특성

구분		분류	해당불서	종수	비율
시기	왕조				
조선전기	세종	經典類-法華部	妙法蓮華經	5종	19%
		宗義類-禪宗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史傳類-傳記部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史傳類-靈驗部	舍利靈應記		
	세조	經典類-般若部	金剛經五家解	19종	70%
		經典類-法華部	妙法蓮華經重刊本, 妙法蓮華經		
		經典類-經集部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經典類-密教部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經典類-諸經部	六經合部		
		註疏類-般若部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註疏類-經集部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 注大乘入楞伽經		
		註疏類-論書部	大乘起信論疏		
		宗義類-天台宗	天台四教儀集解		
		宗義類-禪宗	永嘉眞覺大師證道歌(註解)2종, 佛果園悟禪師碧巖錄		
		史傳類-傳記部	釋迦如來成道記(夾註)		
	史傳類-事典部	翻譯名義集			
	禮懺類-齋儀式	天地冥陽水陸雜文			
	성종	經典類-般若部	金剛經三家解(諺解)	3종	11%
		宗義類-禪宗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史傳類-靈驗部		靈驗略抄(諺解)			

효령대군 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효령대군이 원각경 讎校를 끝마치자 세조가 친히 잔치를 베푸는 등 그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로 불교를 지원했다.²⁷⁾ 세종과 마찬가지로 세조도 김수온과 교류하며 그의 영향을 받았고 왕권을 이용하여 불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특히 刊經都監을 설치하여 불서의 간행에 힘썼던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조 때 금속활자로 간행한 불서는 모두 18종에 이르고 있는데, 세조가 즉위하자 을해자를 주조하여 간행한 법화경 등 경전류가 8종으

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전류를 살펴보면, 법화경 외에 원각경과 능엄경이 보이고 있는데, 한문본은 물론 여기에 구결을 달거나 국문으로 번역한 언해본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당시 세조는 간경도감에서 능엄경 등 국역불경 10종을 목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는데, 을해자로 찍은 능엄경은 목판본으로 간행에 앞서 주로 교정 용도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주석류, 종의류, 사전류, 예참류에 해당하는 다양한 불서가 금속활자로 간행된 사실

27) 『世祖實錄』 卷35, 세조 11년 3월 9일(丙辰), 『孝寧大君補嘗讎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思政殿設宴慰之』.

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능가경과 기신론과 같이 불경에 주소를 부친 장소문헌도 있으며, 증도가나 벽암록처럼 중국의 역대 선사들이 찬술한 서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을해자본 『천태사교의집해』는 본래 고려 스님 諦觀이 찬술한 것으로 여기에 중국 송대의 스님 從義가 智顓의 『法華玄義』를 바탕으로 원의를 충실하게 집해한 주해본인데, 근래 이와 내용이 동일한 책이 간경도감에서도 목판본으로 간행된 사실이 알려졌다.²⁸⁾ 또한 최근 을해자로 인쇄된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와 『翻譯名義集』은 처음으로 소개된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이 중 『번역명의집』은 송대 스님인 法雲(1088~1158)이 한역 불경의 용어를 범어로 해설한 사전의 일종으로, 이와 내용이 동일한 책이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다음으로 세종은 재위 말년에 이르러 정비인 소헌왕후 심씨가 죽자 이를 계기로 불문에 귀의하고 훈민정음 창제 후 여러 불경에서 발췌하여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석보상절을 바탕으로 친히 『월인천강지곡』을 지어 갑인자와 한글 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이처럼 세종은 소헌왕후가 죽은 뒤 호불적 성향이 더욱 강해진 듯하며 늘 불경을 가까이 두고 즐겨 읽었다고 한다. 한 예로, 세종은 대군들이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만든다는 기록이 보이며,²⁹⁾ 세종 30년 9월 8일 기사에는 김수온이 이전에 어떤 공으로 인해 세종에게 관직을 除授받았는데 그 중

하나로써 수양대군, 안평대군과 함께 불서를 번역했다는 내용이 보인다.³⁰⁾ 세종은 여러 儒臣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궁 안에 내불당을 설립하고 불당에 황금불 3구를 안치하는 등 불교를 신봉하였다.³¹⁾

이러한 배경 하에 세종은 당시 세자였던 문종과, 안평대군, 수양대군, 김수온 등에게 명하여 불경을 언해할 것을 명하고 갑인자로 불서를 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 때 갑인자로 간행한 금속활자본 불서는 모두 5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소헌왕후가 죽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과 세종이 친히 부처의 일대기와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을 지은 것이다. 곧이어 세종은 문소전에 내불당을 설치하고 경찬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불전에 둔 사리에서 광채가 나타나서 모인 사람들이 크게 감응한 영험 사실을 김수온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사리영웅기』를 편찬하였는데, 이들은 사전류에 해당하는 불서이다.

그리고 이 무렵 조선 건국초기 정도전으로부터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주장된 배불론에 대해 함허당 득통화상이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시정하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쓴 『현정론』이 갑인자로 간행을 보게 되었다. 유교 국가에서 세종대의 대표적 국가 활자인 갑인자로 불교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서적을 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일은 권수에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안평대군이 주도하였을 것으

28) 송일기. 2012. 寶成禪院 三尊佛의 腹藏典籍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85-288.

29) 『世宗實錄』 卷112, 세종 28년 5월 18일(乙酉). 『傳旨承政院曰 大君等爲王妃, 成佛經』.

30) 『世宗實錄』 卷121, 세종 30년 9월 8일(辛卯). 『守溫夤緣左右, 交結首陽·安平兩大君, 反譯佛書』.

31) 『世宗實錄』 卷121, 세종 30년 8월 5일(戊午). 『上晚年以病不得與大臣接見, 而廣平·平原二大君連逝, 昭憲王后又薨, 聖心無聊. 於是首陽大君·安平大君瑢, 惑於邪說, 先意啓迪, 置佛堂於宮禁之傍』.

로 생각된다. 실로 이 책의 간행은 선종의 한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전반의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 외에 법화사상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어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중시되어 온 『묘법연화경』이 간행되었다. 이 법화경은 실은 앞서 편찬 간행된 『석보상절』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진작부터 중시되어 온 대표적 공덕 불경이다. 그리하여 세조가 등극하고 얼마 있지 않은 시기에 다시 중간을 하였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이후 전국의 사찰에서 이 갑인자본을 모본으로 40여 회 이상 복각 간행되었을 정도로 중시했던 불경이다.³²⁾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으나 이내 사망하자 성종이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세조의 정비인 정희왕후가 한 동안 수렴정정을 하였으며, 또한 성종의 모후인 인수대비의 간섭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왕비를 비롯하여 왕실의 여러 여인들의 발원으로 승하한 세조와 일찍 죽은 세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불경이 간행되었다.³³⁾ 이때 간행된 불경들은 수록재 등 불교 행사와 관련된 의례와 공덕용 불서가 다수 간행되었으며, 또한 대자본 법화경을 비롯하여 능엄경, 원각경, 지장경, 범망경 등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수의 방대한 분량의 불서가 거듭 다시 인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금속활자로 간인된 불서는 『금강경삼가해』(1482년), 『증도가언해』(1482년), 『영험약초언해』(1485년) 등 3종의 언해본으로 율해자와 정축자로 인출하였다.

이 중 금강경의 언해는 멀리 세종의 유명으로 세조 때 육조해만을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바 있으며, 또한 앞서 세조 때 득통의 설의를 포함하여 오가해의 편찬을 완료하고 정축자로 인쇄하였으나, 정작 전체적인 언해는 완성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성종 13년(1482)에 정희왕대비의 명으로 학조를 중심으로 이미 편찬이 완성된 한문본 <오가해> 중 야부의 송, 종경의 제강, 득통의 설의 등 3가의 주해를 뽑아 구결을 달고 한글로 번역하여 5권 5책으로 완간한 것이다. 금강경의 번역 작업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세자(훗날 문종)와 수양대군(훗날 세조)에게 번역을 명했으나 초고를 마치고 교정하기 전에 그것을 끝마치지 못하고 승하하였고, 이어 문종이 즉위하였으나 이내 사망하여 이루지 못하고 계속 사업으로 남게 되었다가 이제야 완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발문에 자세히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강경 하나의 불경에 대해 세종의 명으로 당대에 착수하여 문종, 단종, 세조, 예종을 거쳐 성종 대에 이르러 그 사이 주석과 언해 작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지속되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학술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업적이 아닌가 한다. 이때 증도가언해도 함께 진행되어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앞서 역시 세종의 명으로 세조 때 주해가 완성되어 두 차례나 금속활자로 간행 보급되었던 바가 있다. 그리고 곧이어 성종 16년(1485) 『불정심다라니경』과 『영험약초』 또한 학조의 노력으로 언해하여

32) 鄭王根. 2012.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pp.79-111.

33) 千惠鳳. 1991. 朝鮮前期 佛書板本. 『韓國書誌學』. 서울: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 pp.694-706.

을해자와 한글 작은 활자로 간행하였다. 이 2종의 불서는 인수대비가 다라니의 영험적인 힘으로 성종의 장수를 빌기 위해 한문본은 목판본으로 언해본은 을해자로 인출한 것이다.

그러나 정희왕대비와 인수대비, 그리고 문정왕후 등 불교를 신봉하던 왕실의 여인들이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불교계를 지원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중종반정 이후 조선에 수용된 성리학이 더욱 공고해 졌으며, 이에 유신들의 배불론이 강화되자 금속활자로 불경을 간행하는 일은 볼 수 없게 되었다.

4.2 조선후기 불서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조선의 문물이 극심하게 파괴되었는데, 이때 조선전기에 주조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여러 종류의 금속활자가 모두 망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임시적으로 훈련도감의 병사들을 활용하여 나무에 새겨서 만든 목활자를 이용하여 서적을 간행하

여 보급하였다. 임난 이후 금속활자는 현종 때 주조한 무신자, 숙종 때 주성한 교서관인서체자, 영조 때 주조한 임진자, 그리고 정조 때 만든 정유자 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불교서적을 간행한 사실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³⁴⁾ 조선후기에 금속활자로 불서를 인쇄한 일은 순조 때 와서 박종경이 사사로이 주조한 전사자로 찍은 경우가 유일한데, 이 전사자로 간행한 불서는 <표 8>과 같다.

전사자는 조선후기 순조 때 외척(外戚)이었던 박종경(朴宗慶)이 순조 16년(1816)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어 동으로 주조한 금속활자이다. 그 후 이 활자로 융희 연간까지 서적을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대략 한 세기 동안 사용하였는데, 초기에는 주로 일가와 친지의 저서를 간행하는데 쓰였으나 이후 민간에서 일반 서적을 인출하거나 사찰에서 불서를 간행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특히 孝裕大王大妃가 대원군과 정권을 도모하여 고종이 집정하던 무렵에 대원군이 이 활자를 몰수하여 불서를 간행하는 데

<표 8> 조선후기에 간행된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문헌적 특성

구분		분류	해당불서	종수	비율
시기	왕조				
조선 후기	고종	經典類-般若部	金剛經正解,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金剛般若波羅密經	9종	100%
		律典類-小乘部	七衆受戒儀軌		
		律典類-大乘部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宗義類-禪宗	法海寶筏		
		史傳類-靈驗部	述夢瑣言		
		史傳類-寺誌部	國內寺刹現行細則		
		禮懺類-法儀式	甘露法會		

34) 다만 정조 9년(1785)에 丁酉字로 인출한 『義僧番錢減半給代事目』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남한 및 북한 산성에 소속된 義僧의 防番錢을 減半하고 그 給代를 조달하기 위한 방책을 규정한 事目으로 일종의 정책문서와 같아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에 쓰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고종 때 전사자로 유일하게 불서를 간행하였는데, 현재까지 9종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사자본 9종의 불서는 문헌적 성격이 불경 그 자체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법회나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경전류에는 반야부 해당하는 금강경 등 3종이 간행되었는데, 이 무렵 청나라에서 구입해 온 판본을 저본으로 증간하는 풍조가 보이고 있다. 『금강경정해』는 구마라집(343~413)의 한역본을 剩間居士 龔概綵가 주석을 달고 蓮舫居士 扈正智가 교정한 금강경 해설서로, 부처가 제자 수보리를 위하여 설교한 경전이다. 본문은 제일 먼저 六祖大鑿禪師, 곧 혜능(638~713)이 설법한 『金剛經口訣』과 이어 공기체가 금강경에 註를 달고 호정지가 校를 한 正解가 수록되어 있고, 끝에 王化隆의 『金剛經總提』가 합철되어 있다. 그리고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은 대승불교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으로 그 뜻은 '지혜의 빛에 의해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경전이 크고 넓은 반야계 여러 경전의 정수를 뽑아내어 응축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권수의 서문과 본문의 경계 아래에 '大顯了通禪師'라는 작자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요통은 송나라 조동종 계통의 스님인 대전화상으로 알려져 있으니, 려말선초에 우리나라에서 조동종이 유행하면서 선초에도 이미 대전화상의 『註心經』이 간행된 바 있다.

다음으로 율전류에는 『칠중수계의례』와 『범망경』 2종의 율서가 포함되어 있다. 『칠중수계의례』는 '受菩薩戒法'으로 불리며 수계의식의 절차를 유형별로 정리한 의례에 관한 문헌으로,

불교에서 재가 신도나 출가 수행승의 구별 없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10단계 수계의식의 절차를 소개하고, 이어 모든 불교도들이 수행정도에 따라 각기 지켜야 할 계율을 밝히고 있다. 권말에 朗應 鏡臨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그가 주도해서 간행한 불서이다. 또한 『범망경』은 대승보살의 제1경전인 범망경에서 노사나불이 설했다는 『心地法門品』의 『菩薩戒本』만을 뽑아 간행한 책이다. 이 율전은 僧肇의 後序에 따르면 112권 61품으로 구성된 범문이 있었으나 전체는 한역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본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하권만 따로 뽑아 보살계본으로 삼아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삼고 있다. 내용은 보살이 지켜야 하는 十重大戒와 十善戒 등 보살이 지녀야 할 몸가짐과, 말씨와 마음자세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천덕목을 담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한국불교 종단의 조직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발문에 '康熙戊辰(1688)七月晦日 月渚沙門道安 謹跋'이라는 기록이 보이며 이를 저본으로 고종 연간(1863~1907)에 전사자로 증간한 것이다.

그밖에 종의류, 사전류, 예참류에 해당하는 불서가 1종씩 포함되었다. 그 중 『법해보벌』은 고승들의 법어를 수록한 책으로 고종 20년(1883) 7월 우란회를 연 뒤 보광거사 劉雲이 달마선사를 비롯한 禪敎의 조사들이 설법한 『論心要籤』을 모아 편찬한 것인데, 이 가운데는 고려 때 보조국사 知訥이 지은 『眞心直說』과 『修心訣』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감로법회』는 19세기 후반 관음신앙에서 나온 신앙결사체인 甘露法會의 실천 요강서이다. 甘露는 관세음보

살이 항시 지니고 다니면서 중생들을 정화시키는 淨水를 뜻한다. 『감로법회』는 감로법회의 기본 경전인 『濟衆甘露』가 나온 다음 감로법회를 운영하기 위한 실천 요강서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권수에 ‘葆光居士述’이라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스님이 찬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서는 조선 후기 조선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관음신앙 및 이에 의거한 결사 운동의 양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조선후기 기인인 月窓居士가 金大鉉이 지은 『술몽쇄언』이 전사자로 간행되었는데, 그는 임종 전에 그 동안 쓴 자기의 모든 저서를 불살라 『字學正典』 1책과 이 책만을 남긴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권수의 自序에 하루는 술에 취하여 창 아래에 쓰러져 누웠다가 그대로 한 꿈을 꾸었다가 잠이 깨어서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듣는 이가 어리둥절해 하여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가 본 바를 적어 ‘述夢瑣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구제하려는 뜻으로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유교와 도교의 사상을 가미하여 저술하고 「知常」·「妄幻」 등 87개의 소재목을 붙여 인생의 근본문제를 다루었다.³⁵⁾ 이 책의 근원은 불교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나 전편을 통하여 단 한번도 ‘佛’자를 쓰지 않고 있어 분류가 난감한 문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책은 어느 곳에 분류하기가 곤란한 성격의 문헌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찬술 문집에 분류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나 꿈을 소재로 영험적 사실을 다루

고 있어 편의 상 영험부에 해당하는 문헌으로 파악하였다.

이상 조선시대 간행된 금속활자본 불서의 특성은 조선의 시대적 불교 동향과 함께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이해되며, 금속활자본 불서의 간행에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또한 왕실의 호불적 성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불사 활동을 지원한 결과로 다수의 불교서적이 간행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다.

5. 결 언

이상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을 조사하여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판본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을 간행사실과 문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36종이 현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갑인자본이 9종, 을해자본이 13종, 정축자본이 2종, 을유자본이 3종, 그리고 전사자본이 9종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을해자로 간인된 불서가 13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어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9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현전본은 대략 세종 말년에서 세조연간 사이에 간인된 것으로 국한병용본 2종과 한문본 7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35) 이 책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흔히 있는 꿈을 소재로 하여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과 악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사랑과 미움과 분노와 기쁨에 집착하고자 하는 것도 우스운 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전적은 국한문을 병용한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 2종이며, 한문본 『현정론』이 새로 발견되었다.

셋째, 을해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12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한글 활자가 사용된 언해본은 『능엄경언해』, 『증도가계송언해』, 『영험약초언해』 3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9종은 한문본이다. 한문본 9종에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注大乘入楞伽經』(卷4)이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서 계명대와 동국대에 소장되어 있는 『능가경주해』와 더불어 세조 때 불서 간행 경향이 주목된다. 또한 최근 을해대·중·소자로 인쇄한 『翻譯名義集』(卷1-3)이 새로 발견되었다.

넷째, 정축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금강경 〈오가해〉와 〈삼가해〉 2종에 불과하다. 이 오가해는 세조가 친히 쓴 대자로 정문의 자본으로 삼아 주조하였으며, 주해문은 이미 세종 때 주조한 초주갑인자의 중자와 소자를 이용하여 100부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수량은 근래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수습한 권하 1책을 포함하여 겨우 상·하 한 질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국사본은 전후 표지가 완전한 최선본으로 권수에 『法施之寶』라는 내사인이 찍혀 있고 권말에는 김수온과 세조의 어제발 등 8건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판본이다.

다섯째, 을유자로 간행된 불교전적은 모두 3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원각경구결본』은

원각사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와 한글 활자를 주조하고 이를 국역하여 간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그 보다 앞서 1465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원각경 언해본과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전사자로 인쇄된 불교서적은 모두 9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100여종의 전사본을 소개한 목록에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새로 추가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사자를 사용하여 간인된 시기는 고종 19년(1882)에서 광무 6년(1902)까지 대략 20년 동안으로 주로 甘露社에서 주관하여 인쇄되었다.

일곱째, 조선전기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27종이 傳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세조대에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18종으로 조사되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대에는 5종으로 19%, 그리고 성종대에는 3종에 불과하여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조의 호불적 성향과 매우 깊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조선후기에는 고종 때 전사자로 유일하게 9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는데, 불서의 문헌적 성격이 불경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법회나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경전류에는 반야부 해당하는 금강경 등 3종이 간행되었는데, 이 무렵 청나라에서 구입해 온 판본을 저본으로 중간하는 풍조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朝鮮王朝實錄』.
- [2]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3] 金斗種. 1980.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 [4] 천혜봉. 2012. 『한글금속활자인쇄사』. 서울: 범우사.
- [5] 안승준. 2014. 월인천강지곡의 부안 실상사 소장 경위와 그 전래 과정. 『藏書閣』, 32: 48-74.
- [6] 송일기. 2012. 寶成禪院 三尊佛의 腹藏典籍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71-295.
- [7] 송일기. 2014.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書誌學研究』, 58: 119-146.
- [8] 옥영정. 201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홍두선 기증 古書의 현황과 그 가치. 『書誌學報』, 38: 157-186.
- [9] 옥영정. 2008. 장서각 소장 보물 능엄경과 원각경의 인쇄문화적 가치. 『藏書閣』, 20: 5-31.
- [10] 鄭王根. 2012.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ChoSeonwangjosilrok*.
- [2]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 *Hangeul Metal Printing Types*.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3] Kim, Dujong. 1980. *The history of Korean old printing technology*. Seoul: Tamgudang.
- [4] Cheon, Hye bong. 2012. *The history of metal types printing in Korea*. Seoul: Bumwusa.
- [5] Ahn, Seung-jun. 2014. "The Sequence of Possession of Weolincheongangjigok of Silsangsa Temple in Buan." *Jangseogak*, 32: 48-74.
- [6] Song, Il-gie. 2012.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lics inside of Buddhist triad Samantabhadra in the Boseong Templ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71-295.
- [7] Song, Il-gie. 2014. "A Study on the Votiv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Wooden Seated Statue of Amitabha at Suguksa Temple." *Seojihak Yeongu*, 58: 119-146.
- [8] Ok, Yeongjeong. 2011. "The Present Situation and Values of Hong, Doo Seon's Donation Old Books Kept in Seoul Museum of History." *Seojihakbo*, 38: 157-186.
- [9] Ok, Yeongjeong. 2008. "Printing-cultural Values of Śūraṅgama-sūtra and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Treasures Owned by Changseo-gak." *Jangseogak*, 20: 5-31.
- [10] Jeong, Wanggeun.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n lotus sutra published in Cho-sun Dynasty*. Ph.D. dis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